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 II

김 상 옥(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연구의 목적

1998년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6%로써(통계청, 1998) 이제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의 문턱에 바짝 다가섰다. 고령화사회가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 가운데 가장 주시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마도 노인부양의 문제일 것이다. 노인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정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들(Archord, 1983; Cantor, 1983; Lazarus and Folkman, 1984; Cowgill, 1986; Deimling and Bass, 1986; Pearson et al., 1988; Pearlin et al., 1995)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핵가족화, 도시화, 취업구조의 변화 등)와 결부됨으로써 그 심각성을 점차 더해 가는 경향이 있다(임종권 외, 1985; 성규탁, 1990; 박재홍, 1993; 장경섭, 1993).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의 형성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사적 부양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장인협과 최성재, 1994) 우리사회의 경우 노인부양 문제는 상당 부분 가족구성원들의 책임으로 간주됨으로써 급증하는 부양부담을 개개 가족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성을 더해 가는 가족내 노인부양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필자(김상옥과 양철호, 1998)는 가정내의 제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로 구성된 부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인과모형을 제시·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 논고에서도 명확히 지적된 바 있듯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경험적 문제점들

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제시된 인과모형은 그 시안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타 주요 변인들이 배제된 미설정오류(misspecification error)를 범할 개연성이 높았다. 이는 물론 상기 연구가 연구의 원래 목적과 직접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이차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몇몇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이 미설정된 채 모형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경험적 자료가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상기할 때, 미설정오류의 가능성은 모형구성상 근본적 수정을 요하는 사안이다. 둘째, 상기 연구에서 제시된 부양대상자(시부모 및 시모)에 따른 부양행위의 결정요인 비교는 동일한(즉, 시부모가 모두 생존해있는) 부양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동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상이한(즉, 시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생존해있는) 부양자들까지도 일부 포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 점에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대등한 비교(equivalent comparison)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원래의 자료에서 시부모가 모두 생존한 동질적 부양자의 수가 분석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상당히 제약할 정도로 적었다는 사실에 연유하고는 있으나 이상적인 비교가 아님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개선을 요하는 사안이다. 셋째, 제시된 모형의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s,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에 대한 측정방식에 개선의 소지가 있었다. 개념적으로 볼 때,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노인부양이라는 동일한 현상과 관련된 심리적 차원의 태도와 행태적 차원의 행위로 구분되므로 각 개념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척도가 제시된 상태에서 부양자의 당위적 태도와 실천적 행위로 조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화된 방식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두 내생변인의 측정속성(measurement properties)에 대한 대등한 비교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측정속성 자체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경향을 보였다.

요컨대, 미설정오류의 가능성, 이질적 부양자집단의 포함으로 인한 대등치 못한 결과비교, 그리고 측정방식의 문제점은 상기 연구가 지니는 태생적 한계로써 개선을 요하는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함으로써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태도 및 행위와 관련을 지니는 여타의 주요 외생변인들(exogenous variables)이 추가적으로 설정된 보다 포괄적(comprehensive)인 인과모형이 제시될 것이며, 부양대상자와 연관된 부양자의 인구학적 속성을 완벽하게 동질화시킴으로 부양대상자에 따른 결과비교의 대등성을 보장할 것이고, 내생변인들에 대한 보다 표준화된 측정방식이 사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개선작업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물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전의 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가늠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도입된 개선은 최소한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도 보다 견고(robust)하게 확보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부와 시모와 관련된 부양자의 속성을 완벽하게 동질화시킴으로써 부양대상자에 따른 결과비교의 대동성을 보장하려는 개선작업은 시부부양모형과 시모부양모형이 별도로 설정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부부양 및 시모부양에 대한 별도의 분석 결과 부양행위의 결정요인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시부와 시모에 대한 별개의 모형이 구성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겠지만, 만일 두 결과간에 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시부부양과 시모부양이 유사한 선행요인(antecedents)을 공유하는 현상으로써 동일한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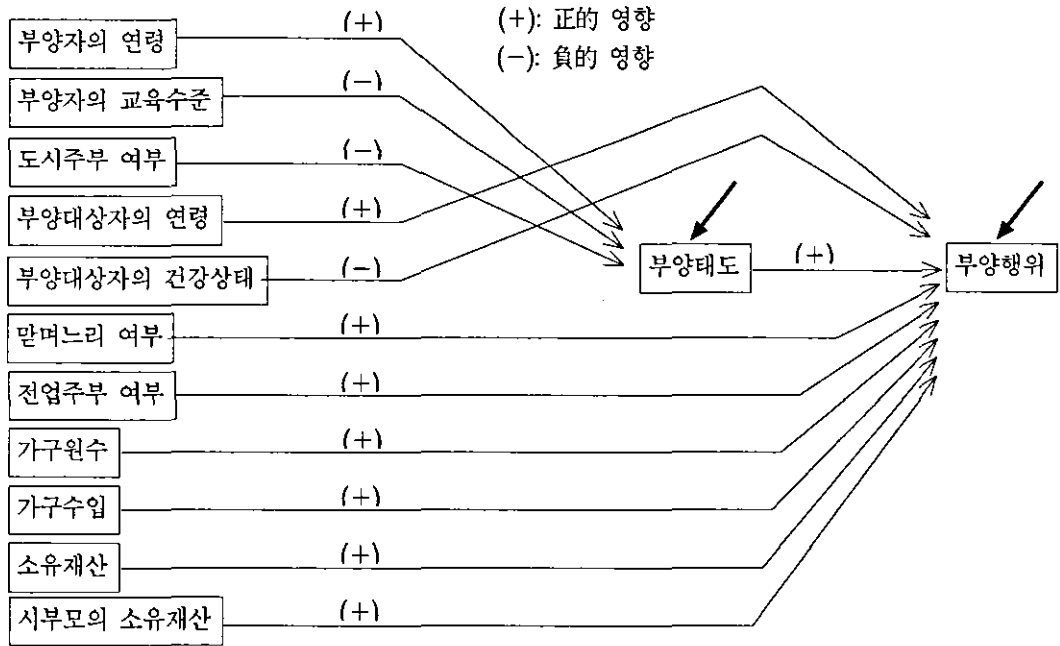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이 모형은 공변량구조등식모형(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써 상계논문(1998)에서 제시된 모형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타의 주요 외생변인들이 추가적으로 설정된 것이다.¹⁾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정된 외생변인들은 부양자가 도시주부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dummy variable) 및 전업주부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 가구수입, 소유재산, 그리고 시부모의 소유재산 등 5가지로써, 이들 변인들은 대체로 부양자가 거주하는 지역(도시 對 농촌) 및 가사전담 정도, 그리고 가구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이다.

제시된 모형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첫째, 모형의 변인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심리학적 구성체(psychological construct)가 일부(예, 부양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다수의 변인들이 부양자 혹은 부양대상자의 심리상태와 무관하게 실태적 행태를 나타내는 사회학적 구성체(sociological construct)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학적 구성체 위주로 모형이 구성된 이유는 노인에 대한 부양행위는 근본적으로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을 지니는 객관적·실태적 행태를 지칭하는 현상으로써 이를 설명하는 선행요인들 또한 개인의 주관적·심리적 지향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구성체보다는 객관적·실태적

1) 상계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내생변인은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라는 두 변인으로 구성되는데, 부양태도는 의식의 현대성과 전통성을 양극단 속성(attributes)으로 보유한 연속형변인으로 조작화되었으며 부양행위는 행태의 소극성과 적극성을 양극단 속성으로 보유한 연속형변인으로 조작화되었다. 각 변인의 속성에 대한 명명에 있어서의 이같은 차이는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부양태도는 의식의 현대성 및 전통성에 초점을 부여한 개념임에 비하여 부양행위는 행동의 소극성 및 적극성에 초점을 부여한 행태학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사실을 나타내는 사회학적 구성체 위주로 구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 이 점에서 볼 때, 제시된 모형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모형이기보다는 사회학적 모형의 특성을 지닌다. 둘째,



<그림 1>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본모형

인과경로 설정의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외생변인들은 부양태도라는 매개적 내생변인(intervening endogenous variable)을 경유하여 부양행위라는 최종 내생변인에 영향을 미침에 비하여 일부 외생변인들은 부양태도에 의하여 매개됨이 없이 부양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경로가 설정되었다. 상계논문에서도 논의되었던 바 있듯이, 이러한 방식의 인과경로 설정은 태도(attitude)와 행위(behavior)간의 본질적 속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부언컨대, 지속성 및 표출성의 측면에서 태도와 행위를 구분할 때, 태도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을 지님에 비하여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변적이고 외재적인 특성을 지닌다(Fishbein and Ajzen, 1975; Schuman and Johnson, 1976). 따라서, 본 연구의 부양자인 자

2) 설명하고자하는 결과변인(혹은 종속변인)이 행태적 변인이라고 해서 원인변인(혹은 독립변인) 또한 반드시 행태적 변인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Homans, 1974), 일반적으로 볼 때 행태적 현상에 대한 최적의 설명은 행태적 요인으로써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Blau, 1964).

부(子婦)³⁾들이 결혼을 통하여 시가식구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부양자 자신의 내재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은 일차적으로 심리적 구성체인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양자 자신의 지속적·내재적 특성과 관계없이 결혼 이후에 비로소 접하게된 부양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및 건강상태) 및 가족내의 역할(맡겨느리 여부, 전업주부 여부), 그리고 상황(가구원수, 가구수입, 소유재산, 시부모의 소유재산) 등은 행태적 구성체인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경로설정은 설정이 배제된 여타의 경로들 역시 이론적 개연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것이 사실이며, 또한 경로설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LISREL분석방식에 제시되는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를 근거로 인과경로의 추가적 설정 및 추정을 행함으로써 보완적 해결이 시도될 것이다.⁴⁾ 본 연구에 도입된 인과경로설정 전략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폐쇄적인가의 문제는 물론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겠으나,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요인이 상대적 지속성 및 표출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상계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었다.

III.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및 조사대상의 선별

제시된 모형추정을 위한 자료는 1998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조사를 위한 표본은 각 지역을 행정구분에 따라 층화한 후 지역(혹은 층)별로 인구비례의 연령별 쿼터를 배정하고 최종적으로 무작위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의 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이 사용되었다.

3) 본 연구에서 부양자를 자부로 한정시킨 이유는 가족내 부양전담자가 딸인 경우가 대부분인 서양사회(Antonucci et al., 1996)와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계직계가족제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동양사회에서는 아들과 함께 부양의 공유된 책임을 부여받는 며느리가 전통적으로 가정내 노부모부양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양전담자라는 사실(임종권 외, 1985; 이가옥 외, 1990; 성규탁, 1995; 김태현, 1998)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4) 모형의 인과경로설정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상계논문을 참조할 것.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선별방식을 설명하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조사대상을 “현재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써, 시부모 가운데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며, 자신은 아직까지 며느리를 보지 않은 가정주부”로 한정하였다. 즉, 조사 당시에 미혼이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사유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 및 20세 미만 6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 시부와 시모가 모두 사망한 사람들⁵⁾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여 이미 며느리를 본 사람들은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부양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시부와 시모를 동시에 포함한 혹은 양자중 어느 한 쪽이라도 대상으로한 부양이 아닌 시부와 시모를 별도로 지정하여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선별된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시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응답자들 그리고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지니는 결측치(missing values)를 일률적(listwise)으로 제거한 후 621명을 시부 및 시모부양을 위한 최종 사례수로 선정하였다.

2. 변인측정

모형에 설정된 대부분의 외생변인들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이므로 특별히 측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일상활동수행능력(ADL)을 제시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척도가 사용되었음을 일러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모형에 설정된 두 가지 내생변인인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각기 노인부양의 세 가지 차원—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신체·서비스부양—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15가지 문항을 제시하고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상호 혼합한 변인(composite variable)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제시된 모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LISREL8(Joreskog and Sorbom, 1993)의 ML(maximum

5) 이는 시부모 가운데 한 분만 생존한 사람들도 원래의 조사에는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있듯이, 시부부양 및 시모부양 결과간의 대등한 비교를 기하기 위하여 이들은 차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likelihood) 추정절차를 통하여 행하였다. LISREL 분석방식이 사용된 주된 이유는 복수의 내생변인을 포함하는 경로모형의 추정에 LISREL 분석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가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부양행위에 대한 각 외생변인의 전체영향을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부양행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시된 이론적 모형이 실제의 경험적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모형부합치(model fit statistics)를 통하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사실 등이 동시에 고려되었다.

IV.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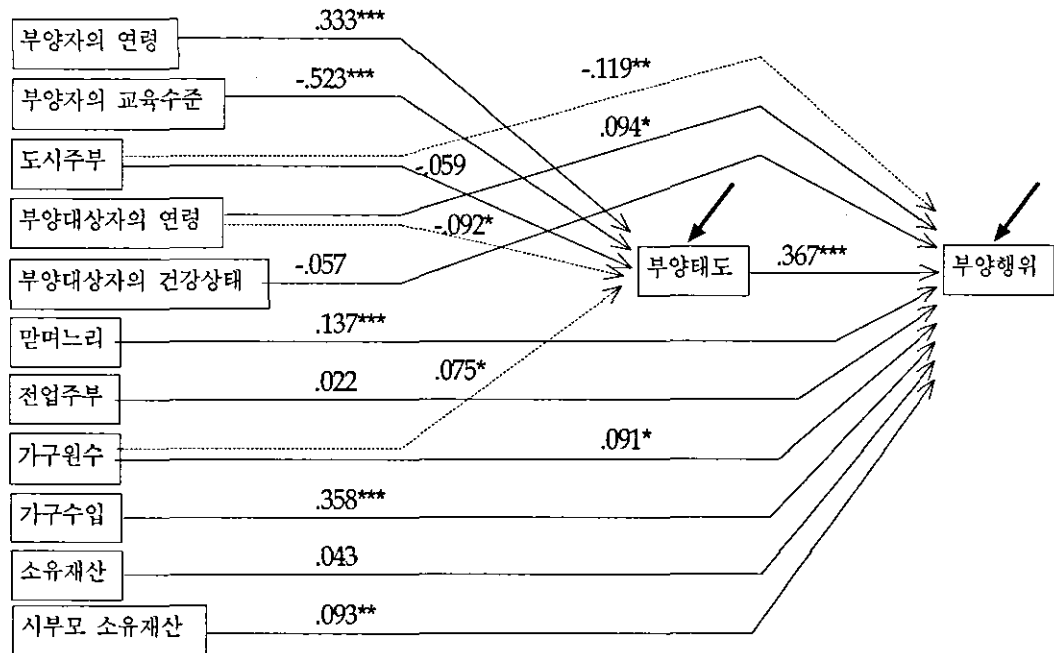
제시된 모형에 대한 통계적 추정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모형추정전략을 간략히 언급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형(〈그림 1〉)을 먼저 추정한 후 기본모형에서 추정이 허용되지 않았던 인과경로들 가운데 주요한 경로들을 기존에 추정되었던 모형들에 대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하나씩 부가적으로 자유화(free up)시킴으로써 최적모형인 수정모형(revised model)을 최종적으로 추정하였다. (모형추정전략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상계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1. “시부”부양에 대한 모형 추정결과

시부부양에 대한 기본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기본모형 추정결과를 토대로 이전에는 추정이 허용되지 않았던 인과경로들을 하나씩 부가적으로 자유화한 결과 3가지 경로-도시주부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beta = -.119$), 시부연령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beta = -.092$), 가구원수가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beta = .075$)-가 이론적 개연성이 높으며 수정지표(MI)도 현저하다는 이유에서 순차적으로 새로이 추정되었다.

수정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인들 가운데는 부양태도라는 매개적 내생변인을 통하여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변인도 있음을 고려하여 부양행위를 최종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각 외생변인의 부양행위에 대한 직접·간접·전체 영향을 분리시키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부양행위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한 외생변인들을 그 영향의 절대적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부양태도(.367), 가구원수(.358), 교육수준(-.192), 도시주부(-.140), 맘머느리(.137), 연령(.122), 가구원수(.118), 그리고 시부모 소유재산(.093)

이다. 요컨대, 시부에 대하여 전통적인 부양태도를 지니는 자부일수록,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자부일수록, 농촌에 거주하는 주부일수록, 만며느리일수록, 연령이 높은 자부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시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자부는 시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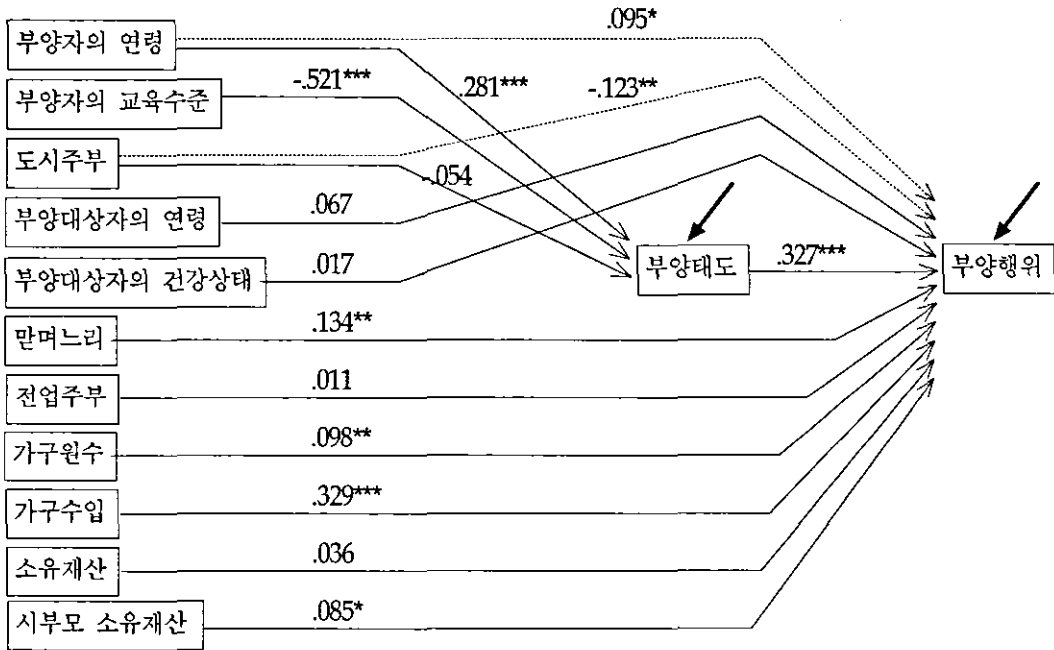


¹⁾실선은 기본모형에서 설정된 인과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수정모형에서 추가적으로 설정된 경로를 나타냄.

<그림 2>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수정모형¹⁾: 시부부양編 (N=621)

2. “시모”부양에 대한 모형 추정결과

시모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시모모형에서도 기본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모형들이 연속적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결과 두 가지 인과경로-즉, 부양자의 연령($\beta=.095$) 및 도시주부($\beta=-.123$)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가 수정지표(MI)가 현저하며 이론적 개연성 또한 높다는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추정되었다.



*) 실선은 기본모형에서 설정된 인과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수정모형에서 추가적으로 설정된 경로를 나타냄.

<그림 3>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수정모형¹⁾: 시모부양編 (N=621)

시부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모모형에서도 경로분석이 시도되었는데, 시모부양행위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한 변인들은 가구수입(.329), 부양태도(.327), 연령(.186), 교육수준(-.170), 도시주부(-.140), 만머느리(.134), 가구원수(.098), 시부모 소유재산(.085)의 순이었다. 요컨대,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부양태도를 보유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주부일수록, 만머느리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시부모가 소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자부의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가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현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

다는 사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시부 혹은 시모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부양태도는 상당히 현대적(평균=15.957, 시부; 평균=16.145, 시모)⁶⁾임에 비하여 부양행위는 비교적 적극적(평균=19.058, 시부; 평균=17.320, 시모)⁷⁾인 편이었을 뿐 만 아니라 양자간의 상관관계($r = .398$, 시부; $r = .392$, 시모) 또한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현대적 유형의 부양태도와 적극적 유형의 부양행위가 동시에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노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관념 및 가치관이 이미 상당 부분 퇴색되고 현대적 유형의 의식에 의하여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태도가 실제적 행동으로까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양행태에 있어서는 전래의 관습이 아직도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전의 연구(상계논문, 1998)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노인부양이 타율적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임종권 외(1985)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모형에 설정된 두 내생변인 사이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유지시키는 결과이다.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간의 이와 같은 불일치현상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상계논문(1998)을 통하여 우리 나라 여성들의 시부모부양이 진정한 개체의식의 자발적 발로로써 수행되는 것이기보다는 자부로서의 부여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켜야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수동적 반응의 성향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써, 주부들의 잠재적 역할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임과 동시에 그같은 역할갈등이 가정불화의 형태로 표면화될 상시적 가능성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각 현상의 하위 차원들간의 연관관계는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양태도의 세 가지 하위 차원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부모⁸⁾에 대한 부양태도가 가장 현대적인 차원은 다름 아닌 경제적 부양(평균=4.972)이었으며 신체·서비스 부양(평균=5.377)이 그 다음이었고 정서적 부양(평균=5.702)이 가장 덜 현대적이었다.⁹⁾ 이러한 차이는 주부들이 시부모를 부양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양에 비해서 보다는 정서적 부양을 제공해야할 당위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양행위의 세 가지 하위 차원에 있어서는 정서적 부양(평균=7.010)이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경제적 부양(평균=6.085)과 신체·서비스 부양(평균=6.037)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었다.

6) 시부모형 및 시모모형 공히 부양태도의 최소값은 12이며 최대값은 24임.

7) 부양행위의 최소값 및 최대값: 시부모형=12~24; 시모모형 11~22.

8)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의 각 하위 차원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함에 있어서 시부와 시모에 대한 부양을 구분하지 않고 “시부모”에 대한 부양으로 종합하여 논의하는 이유는, 연이어서 언급되고 있다시피 시부와 시모 사이에 부양태도나 부양행위 그리고 선행요인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부양태도의 세 가지 하위 차원들 모두 최소값은 4이고 최대값은 8이다.

이같은 차이는 주부들이 실제로 시부모를 부양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도움이나 신체수발을 제공하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안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 포함된 주부들은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는 여타의 차원들에 비하여 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하며 또한 실제로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제공하는 한편,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며 또한 실제로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⁰⁾

셋째,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와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선행요인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부모형과 시모모형을 별도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의 외생변인들이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방식에 있어서는 두 모형 간에 다소간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유사했다. 즉,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들—부양태도, 연령, 교육수준, 도시주부 여부, 만며느리 여부, 가구원수, 가구수입, 시부모 소유재산—이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또한, 각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전체영향 계수의 절대값)에 있어서도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상계논문에서는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별도의 모형구성 필요성이 인정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본 연구에 새로이 도입된 주요 개선사항들 가운데 하나인 “부양자의 동질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연컨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시부와 시모에 대한 부양자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고 이질적 부양자집단이 일부 포함됨으로써 부양대상자에 따른 결과비교가 대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를 완벽하게 동질화시킴으로써 부양대상자에 따른 결과비교의 대등성이 보장되었다. 이같은 조건하에서 두 모형 사이에 매우 흡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가 공통의 선행요인을 공유하는 현상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부모부양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별개의 모형이 구성될 필요성이 없으며 동일한 단일 모형으로 시부모 모두에 대한 부양행위가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넷째, 부양태도를 설명하는 인과적 요인과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인과적 요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모형추정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부양자 자신의 지속적·내재적 특성

10)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 포함된 시부모들은 전체적으로 그다지 심하게 연로하지 않은 노인들으로써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재력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양보다는 정신적 부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은 일차적으로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침에 비하여 부양자의 지속적·내재적 특성과 무관하게 혼입(婚入)을 통하여 비로소 접하게된 부양대상자의 특성 혹은 가족내의 역할 및 상황 등은 부양태도보다는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같은 인과관계가 예외 없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컨대 부양자의 내재적·지속적 특성(연령 및 도시주부)이 부양행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또한 부양대상자의 특성(시부 연령) 및 가족내 상황(가구원수)이 부양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의 예외적 인과관계를 고려한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변인들은 부양행위보다는 부양태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변적이고 외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변인들은 부양태도보다는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앞서의 예측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와 연관된 인과요인의 차이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은 상계논문(1998)에서도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 있었다. 요컨대,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결과와 아울러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밝혀진 인과요인의 차이는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가 서로 상이한 선행요인을 지니는 별개의 구성체이며 따라서 이들 두 구성체는 노인부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에 동시에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모형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내린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모형부합치 및 설명력(R^2) 뿐 만 아니라 구성타당도에 있어서도 이전의 모형(상계논문, 1998)에 비하여 상당한 향상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채택된 모형수정전략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증빙하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이와 같은 향상은 본 연구에 도입된 일련의 개선작업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즉, 미설정오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함으로써 모형의 포괄성이 증대되었을 뿐 만 아니라, 부양자를 동질화시킴으로써 부양대상자에 따른 결과비교의 대등성이 보장되었으며, 표준화된 측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뢰도 및 타당도가 가일층 향상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추후의 지속적인 이론적 개발과 반복적 검증을 통하여 수정·보완되고 일반화가능성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